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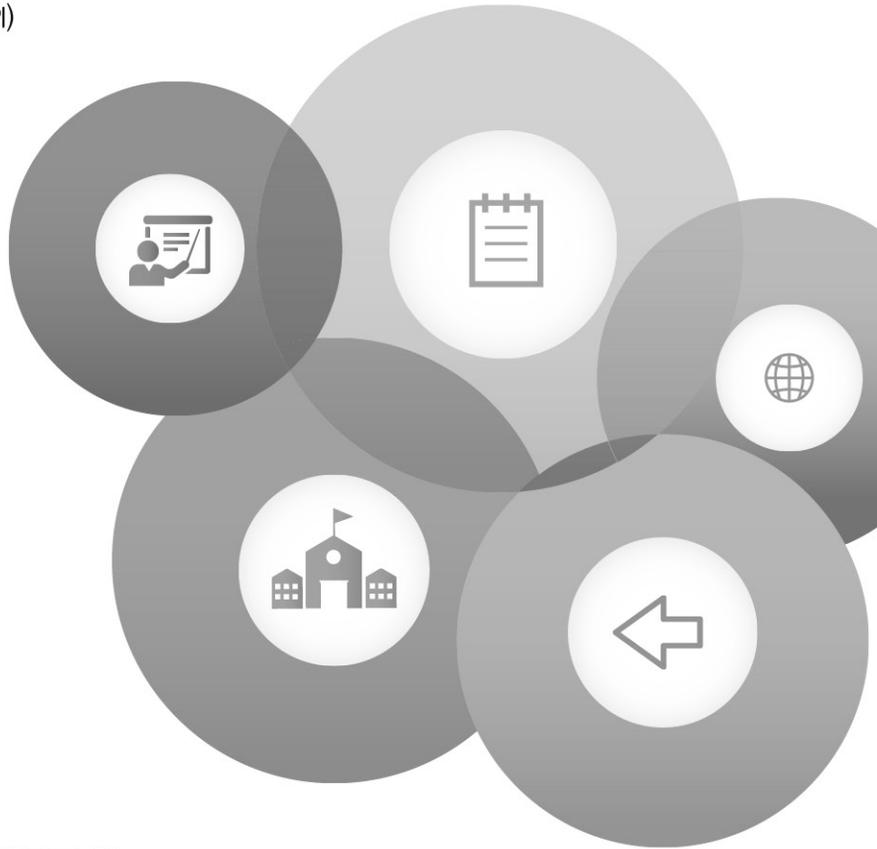
제15회 청소년정책포럼

미래 동포사회 주역인 재외동포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 제안

일시 | 2019년 6월 14일(금) 14:30~17:00

장소 | 양재동 외교센터 2층 세미나실

주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



미래 동포사회 주역인 재외동포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 제안

- 일시 : 2019년 6월 14일(금) 14:30 ~ 17:00
- 장소 : 양재동 외교센터 2층 세미나실
- 주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

시 간	일 정
14:30 ~ 15:00	등록
15:00 ~ 15:10	사회 : 김 경 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개회사] 송 병 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15:10 ~ 15:40	[주제발표] 김 정 숙 (활동참여연구실 연구위원) 재외동포청소년 현황 및 효과적 지원방안
15:40 ~ 16:40	[토 론] 이 진 영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 민 희 (평택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교수) 조 형 재 (재외동포재단 차세대사업부 부장) 김 용 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정책사업부 부장)
16:40 ~ 17:00	전체 토론 폐회



CONTENTS

주제발표

재외동포청소년 현황 및 효과적 지원방안 1
 | 김 정 숙 (활동참여연구실 연구위원)

토론

[토론 1] 29
 | 이 진 영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토론 2] 32
 | 이 민 희 (평택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교수)

[토론 3] 36
 | 조 형 재 (재외동포재단 차세대사업부 부장)

[토론 4] 40
 | 김 용 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정책사업부 부장)

주제발표

재외동포청소년 현황 및 효과적 지원방안

| 김 정 숙 (활동참여연구실 연구위원)





재외동포청소년 현황 및 효과적 지원방안



지구촌 한인 청소년
교육과 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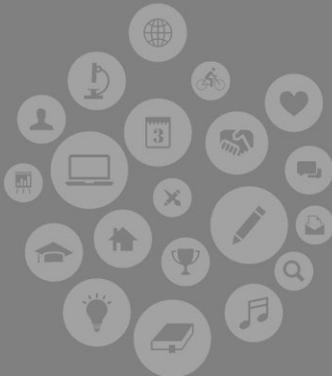
청소년
공동체인 사결



한민족 정체성을
내놓자

김정숙
(활동참여연구실 연구위원)

목차



01. 문제제기
02. 논의의 배경
03. 재외동포청소년 및 교육기관 현황
04. 재외동포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05. 재외동포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현안&이슈
06.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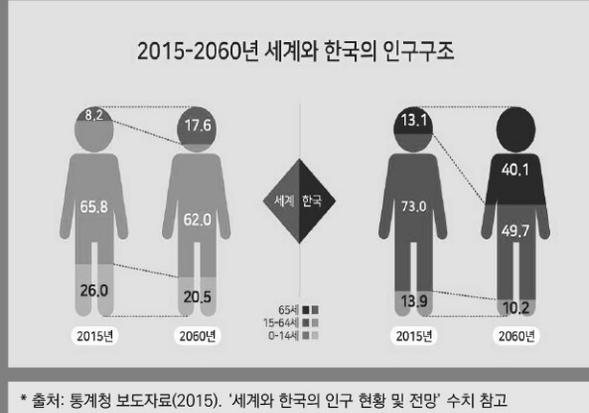
01. 문제제기

01. 문제제기

- 재외동포 인구수는 1971년에는 약 70만명, 1980년 약 140만명, 2000년 560만명, 2017년 740만 명으로 그 수치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외교부, 2017: 42).
- 재외동포는 지금까지 한국이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을 때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냈으며, 현재에도 거주국의 모범 시민으로 자리매김하여 직, 간접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음.
-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청소년은 세계 각국에서 대한민국을 직·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미래의 핵심 인적자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김경준, 김태기, 2015: 22~23).
 - 재외동포는 거주국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대한민국을 위한 민간 외교, 로비스트 등으로 중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대한민국 기업 상품의 1차 소비자 및 광고자의 역할 등을 수행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경제적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는 중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대한민국 발전의 촉진자

01. 문제제기

- 한국 문화를 거주국에 전파하는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역할 수행 → 한민족 문화의 계승자 및 후원자
-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의 통일에 중요한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인구 고령화로 인한 대한민국 인적자원의 변화 → 재외동포를 국가의 미래 인재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01. 문제제기

- 재외동포청소년을 한민족 정체성을 지닌 재외동포 차세대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정체성과 민족성에 대한 고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청소년 시기에 적절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국내 재외동포 관련 정책은 정부의 정책방향과 재외동포사회의 요구가 결합되면서 발전되어 왔는데, 그간 재외동포재단의 설립과 운영, 「재외동포법」의 시행,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 및 소외 지역 재외동포지원, 재외국민선거제도 시행 등이 이루어져 왔음.
- 그러나 재외동포 사회 내의 변화를 고려한 정책, 즉 재외동포 차세대와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체계적 지원정책은 수립되지 못해 왔음.
- 물론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교육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아닌, 부처별로 산발적인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음.

01. 문제제기

- 과거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이주한 재외동포와 달리 1990년대 이후 투자 및 사업, 자녀교육 등을 목적으로 해외로 이주한 재외동포 및 그 자녀들의 한민족 정체성은 이전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특히 재외동포 차세대는 거주국 주류사회로의 편입 및 동화 정도가 높을 수 있어, 한민족 정체성과 모국과의 유대는 약화될 가능성이 큼.
- 이는 거주국 내 재외동포 사회의 원활한 세대교체 및 전세계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본 발표문은 재외동포청소년을 대한민국 발전의 촉진자, 한민족 문화의 계승자 및 후원자로 성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우선 이와 관련된 논의(재외동포청소년의 개념, 재외동포청소년 지원의 근거), 재외동포청소년 및 교육기관 현황, 재외동포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및 지원 욕구, 등을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함.

02. 논의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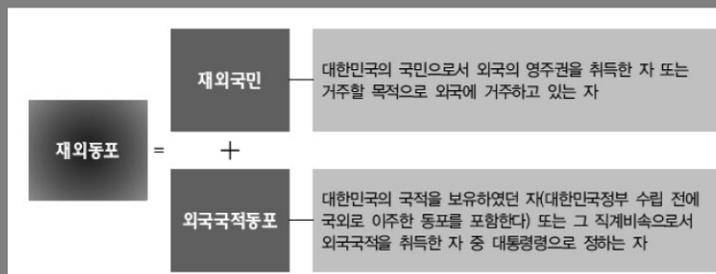
- 재외동포청소년의 개념
- 재외동포청소년 지원의 필요성

N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2. 논의의 배경

1) 재외동포청소년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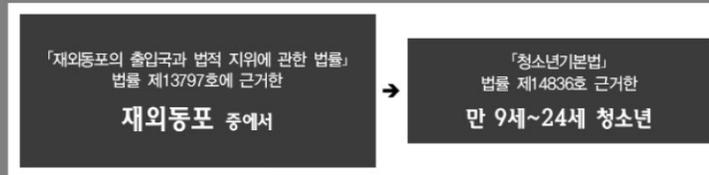
일정기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을 취득하였으나 한민족 혈통을 지닌 사람들 중 그 연령이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그림 1] 재외동포의 정의

* 출처: 김경준, 정은주(2017). 미래 인재 개발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Ⅲ. p. 17

02. 논의의 배경



[그림 2] 재외동포청소년의 정의

* 출처: 김경준, 정은주(2017), 미래 인재 개발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Ⅲ. p. 18

02. 논의의 배경

2) 재외동포청소년 지원의 필요성(김경준·정은주, 2017: 20)

▪ 거주국 동포사회의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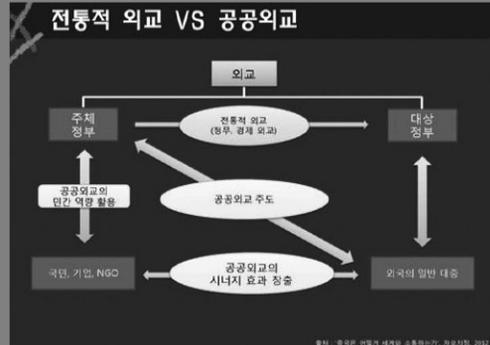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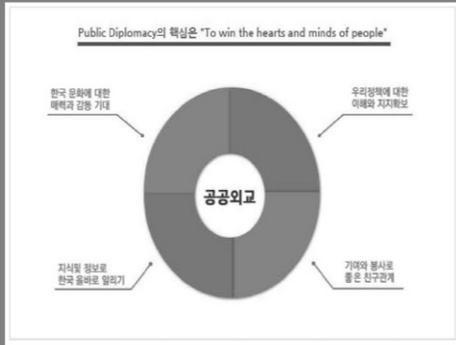
- 동포사회 내 세대교체 속에서 거주국 동포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이끌 주체
- 거주국 주류 사회 진출을 통한 동포사회 및 모국에의 기여
- 모국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상호 이해 도모 등

▪ 한국 정부의 입장

- 대한민국 발전에 필요한 우수인재로서의 활용 가능성
- 거주국 및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
- 남북통일 과정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 등 기대

02. 논의의 배경

▪ 공공외교 자원으로서의 재외동포 역할의 중요성 증대



외교부 공공외교포털(<http://www.publicdiplomacy.go.kr/introduce/public.jsp>) 에서 2019. 5. 20. 인출

02. 논의의 배경

▪ 재외동포청소년 지원에 있어서의 위협 요인

- 해외로 이주한 이민 1세대와 달리 거주국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이민 2세 이상은 한국에 대한 태도나 민족정체성 수준이 다를 수 있음.
- 윤인진·채정민(2007)에 따르면, 재외동포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은 이중정체성에 대한 인식, 정주 의식, 어릴 때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인 등에 대한 친근성 정도에 따라 달라짐.

- 실제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행한 연구(정은주·김정숙, 2018)에 따르면, 거주국에서 출생한 재외동포청소년들은 이민 재외동포청소년에 비해 이중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강한 반면, 한민족정체성 수준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02. 논의의 배경



* 출처: 정은주, 김정숙(2018).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I.

03. 재외동포청소년 및 교육기관 현황

03. 재외동포청소년 및 교육기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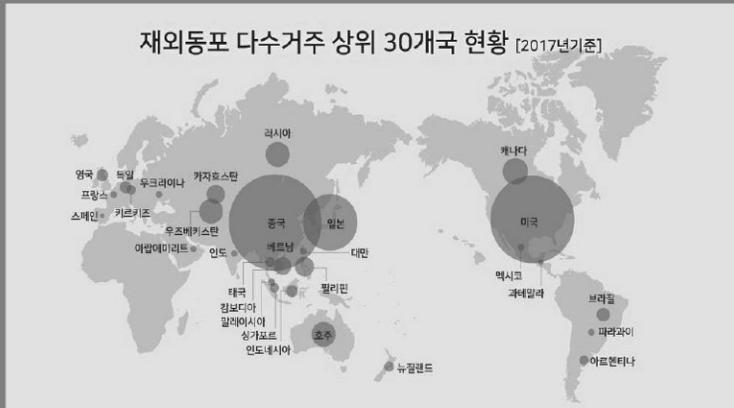
- 현재 재외동포청소년 관련 통계자료는 없으며, 재외동포 인구 현황(추정치)을 통해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수립의 한계점으로 작용
- 재외동포가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 미국, 일본, 캐나다, 우즈베키스탄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재외동포 인구 현황 총계

지역별	연도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백분율 (%)	전년비 증감률(%)
	총계	7,175,654	7,012,917	7,184,872	7,430,664	100	3.42
동북 아시아	일본	913,097	893,129	855,725	818,626	11.02	-4.34
	중국	2,704,994	2,573,928	2,585,993	2,548,030	34.29	-1.47
	소계	3,618,091	3,467,057	3,441,718	3,366,656	45.31	-2.18
	남아시아태평양	453,420	485,836	510,633	557,739	7.51	9.23
북미	미국	2,075,590	2,091,432	2,238,989	2,492,252	33.54	11.31
	캐나다	231,492	205,993	224,054	240,942	3.24	7.54
	소계	2,307,082	2,297,425	2,463,043	2,733,194	36.78	10.97
	중남미	112,980	111,156	105,243	106,784	1.44	1.46
	유럽	656,707	615,847	627,089	630,730	8.49	0.58
	아프리카	11,072	10,548	11,583	10,854	0.15	-6.33
	중동	16,302	25,048	25,563	24,707	0.33	-3.35

* 출처: 외교부(2017). 2017 재외동포현황, 서울: 외교부, p. 14.

03. 재외동포청소년 및 교육기관 현황



* 출처: 외교부(2017). 2017 재외동포현황, p. 43

03. 재외동포청소년 및 교육기관 현황

〈표 2〉 거주 자격별 재외동포 인구 현황

지역별	거주 자격별	재 외 국 민				외국국적 (시민권자)	총계
		영주권자	일반 체류자	유 학생	계		
	총계	1,049,210	1,354,220	260,284	2,672,052	4,758,528	7,430,659
동북 아시아	일본	379,940	57,718	15,438	453,096	365,530	818,626
	중국	6,602	275,338	62,056	349,404	2,198,624	2,548,030
	소계	386,542	333,056	77,494	802,500	2,564,154	3,366,656
	남아시아태평양	104,071	343,346	46,115	496,462	61,185	557,739
북미	미국	416,334	546,144	73,113	1,035,591	1,456,661	2,492,252
	캐나다	57,137	28,861	25,396	111,394	129,548	240,942
	소계	473,471	575,005	98,509	1,146,985	1,586,209	2,733,194
	중남미	52,412	15,234	563	68,209	38,585	106,784
	유럽	30,258	56,243	36,172	122,673	508,062	630,730
	아프리카	2,342	7,534	816	10,692	157	10,854
	중동	114	23,802	615	24,531	176	24,707

* 출처: 외교부(2017). 2017 재외동포현황, p. 28

03. 재외동포청소년 및 교육기관 현황

- 재외동포를 위한 교육기관에는 재외동포들이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한글학교, 재외국민 자녀들을 위한 재외한국학교, 한글학교 및 재외한국학교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교육원 등이 있음.
- <표 3>에는 대륙별 한글학교, 교원 및 학생수 현황이 제시되어 있음.

<표 3> 대륙별 한글학교, 교원 및 학생수

지역	국가	공관	학교수	교사수	학생수
아시아	19	42	298	2,310	19,034
대양주	4	7	71	899	5,796
북미	2	16	969	9,924	52,863
중남미	20	21	85	723	5,321
유럽	26	31	112	917	6,132
러시아/CIS	10	14	207	653	9,037
아프리카/중동	32	29	46	363	1,880
총계	113	160	1,788	15,789	100,063

* 출처: 재외동포재단(2017). 2017 재외동포교육기관 현황, p. 9

03. 재외동포청소년 및 교육기관 현황

- <표 4>, <표 5>에는 재외한국학교 현황, 한국교육원 현황이 제시되어 있음.

<표 4> 재외한국학교 학생 현황

국가	학생수(학급수)				
	유	초	중	고	계
일본 (4개교)	37(4)	963(31)	528(22)	666(27)	2,194(23)
중국 (12개교)	452(25)	2,464(113)	1,414(63)	2,035(89)	6,365(290)
대만 (2개교)	19(2)	83(11)	0	0	102(13)
베트남 (2개교)	41(2)	1,663(51)	758(23)	736(24)	3,198(100)
사우디아라비아 (2개교)	8(2)	24(6)	0	0	32(8)
기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란 등 10개국)	266(19)	921(69)	272(17)	420(21)	1,879(126)
합 계(15개국, 32개교)	823(54)	6,118(281)	2,972(125)	3,857(161)	13,770(621)

* 출처: 재외동포재단(2017). 2017 재외동포교육기관 현황, p. 221

03. 재외동포청소년 및 교육기관 현황

〈표 5〉 재외 한국교육원 현황

국가(교육원 소계)	파견자 수 (명)	관할 내 한글학교		
		학교 수	학생수	교원 수
일본지역(15개)	15	162	7,461	486
미국지역(7개)	8	813	41,913	8,092
러시아지역(4개)	4	68	2,557	217
CIS지역(3개)	5	109	5,155	3,618
기타지역(12개)	12	277	16,782	2,298
합계= 18개국 41개원	44	1,429	73,868	14,711

* 출처: 재외동포재단(2017). 2017 재외동포교육기관 현황. p. 229

04. 재외동포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04. 재외동포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 한국의 실질적 재외동포정책이 수립된 시점은 김영삼 정부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음.
- 1996년 국무총리 산하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설치
- 1997년 3월 재외동포재단법 제정
- 1997년 10월 재외동포재단 설립 등

〈표 6〉 역대 정부 재외동포정책 기본 목표

정부	재외동포정책 기본목표
김영삼 정부 (1993~1998)	·현지화와 모국과의 유대 강화
김대중 정부 (1998~2003)	·현지화, 모국과의 유대강화, 재외동포 활용
노무현 정부 (2003~2008)	·현지화, 한민족 정체성과 자긍심 고양 ·모국과 동포사회 간 호혜발전
이명박 정부 (2008~2013)	·모국과 재외동포 간 호혜발전을 통한 성숙한 한인사회 구현
박근혜 정부 (2013~2017)	·맞춤형 동포서비스를 통한 국민행복 실현 ·모국발전을 위한 동포사회의 역할 확대 ·지역별 특성별 직능별로 특화된 맞춤형 동포정책 추진

* 출처: 전용일 외(2017). 재외동포의 경기적 활용 및 통합체고 방안 연구. p. 48.

04. 재외동포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 문재인 정부의 재외동포정책 비전: “재외동포 사회와 모국 간 연대강화 및 상생 발전 실현”
- 이를 위해 1)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2) 글로벌 민족 네트워크 활성화, 3) 소외된 동포들에 대한 지원 강화, 4) 재외국민 보호 강화 및 영사 서비스 혁신을 중점과제로 설정(국무조정실, 2017. 12.22.)

04. 재외동포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업무: 외교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 기관 담당

부처 및 산하기관	주요 업무	
재외동포재단 (외교부 산하)	교육 사업부	· 한글학교육사업(재외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사이버한국어강좌 개발 운영, 한글학교 교사연수 지원, 재외 한글학교 교사초청연수, 중국 및 CIS지역 민족교육 지원)
	차세대 사업부	· 재외동포 정착사업(초청장학사업, 중국·CIS지역 정착사업) · 차세대양성(멕시코 한인후손 모국체험 연수, 중국동포청년 IT직업연수, CIS동포청년 IT직업연수, 세계한인 차세대포럼, 세계한인청소년 모국연수)
교육부 국제협력관 재외동포교육담당관	· 한국교육원, 재외교육기관 지도 조사 · 해외 한국어교사파견 및 양성지원, 재외동포교육융합포털시스템구축 · 재외교육기관장 선발 및 지도교사, 한국어보급 등	
국립국제교육원 글로벌인재양성부 재외동포팀 (교육부 산하)	·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모국수학) 기획·추진 · 재외동포교육 관련 기관 네트워크 구축 · 재외동포 교육용 교재 및 교사용지도서 개발 추진 · 재외동포 교육용 교재 연구·시험학교 운영 · 재외한국학교 교사 초청 연수 ·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학술대회 지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육부 산하)	· 재외교육기관장 연수 · 재외한국학교 파견 교사 연수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문화체육관광부)	· 국내외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업무 총괄 ·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 교육자료 언어권별 개발 및 출판 지원	

* 출처: 재외동포재단,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04. 재외동포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 전체 재외동포정책의 방향 및 목표와 연계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정책의 방향 및 비전이 부재한 상황임.
- 외교부(재외동포재단),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재외동포 지원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총괄적, 효율적 정책 집행의 어려움이 있음.
- 상술한 문제는 장기적 과제로도 볼 수 있으므로, 현안 중심의 단기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 및 노력 필요

05. 재외동포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현안 & 이슈

N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5. 재외동포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현안 & 이슈

01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사업의 목표 및 내용에 대한 구체화

- 현재 재외동포재단에서 설정하고 있는 재외동포(청소년) 대상 사업은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고 거주국에서 모범적 구성원이 되도록 지원’ & 차세대의 한민족 정체성 및 자긍심 함양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지원은 재외동포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한글학교 운영 지원 및 재외동포청소년 모국 초청 연수 등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져 왔으며, 암묵적으로 한글학교 운영 지원 및 동포 청소년 모국 초청 연수 지원이 그들의 한민족정체성 유지, 함양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제가 유지되어 왔음.
- 그런데 재외동포들의 민족적 유대감이나 한민족 정체성 유지, 함양의 내용은 시대적 변화를 고려하여 재구성될 필요가 있음.

05. 재외동포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현안 & 이슈

- 또한 국제 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 변화, 거주국 사회에서 한글학교의 기능 변화, 재외동포들의 이민 동기 변화와 그에 따른 자녀교육의 관점 변화 등을 고려하여, 현 시점에 부합하는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목표 및 방향 재설정 필요
- 본원에서 실시한 재외동포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김경준·정은주, 2017)에 따르면, 재외동포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은 한민족공동체 발전에 대한 역할 기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한민족정체성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한민족정체성의 구성 요인과 내용, 그것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의 구성에 대한 검토 필요
- 또한 2018년 재외동포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정은주·김정숙, 2018)에 따르면, 재외동포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은 부모와의 한국 관련 활동, 거주국 및 모국 캠프 참여, 한국어에 대한 인식, 관심, 지식, 세계시민의식(역량)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05. 재외동포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현안 & 이슈

〈표 7〉 한민족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변수	Model I	Model II	Model III	Model IV
	B(s.e)	B(s.e)	B(s.e)	B(s.e)
상수	4.285(.118)***	3.142(.211)***	1.183(.229)***	.184(.301)***
개인 변수				
성별(남자=1, 여자=0)	-.111(.070)	-.059(.069)	-.121(.060)*	-.156(.059)**
나이	-.047(.010)***	-.037(.010)***	-.032(.008)***	-.039(.008)***
거주 이유 (출생=1, 이민, 유학 등=0)	-.167(.072)*	-.104(.074)	-.075(.065)	-.114(.064)
부모 한국인 여부 (부모 모두 한국인=1)	-.113(.111)	-.322(.116)**	-.256(.098)**	-.160(.097)
경험 및 활동				
한국 교육기관 경험(유=1, 무=0)		.113(.076)	.026(.064)	.025(.063)
부모와 한국 관련 활동		.264(.047)***	.070(.048)	.070(.047)
한인청소년과의 교류		-.038(.032)	-.023(.027)	-.003(.027)
거주지 & 한국에서의 캠프 및 프로그램 참여		.096(.035)**	.031(.030)	.046(.029)

05. 재외동포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현안 & 이슈

〈표 7〉 한민족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계속)

변수	Model I	Model II	Model III	Model IV
	B(s.e)	B(s.e)	B(s.e)	B(s.e)
한국 관련 관심, 지식 & 인식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029(.033)	.014(.033)
한국어에 대한 관심			.221(.034)***	.213(.034)***
한국 관련 지식			.175(.043)***	.147(.044)**
한국 관련 인식			.322(.047)***	.275(.047)***
역량				
의사소통능력				-.030(.054)
창의적 사고				.056(.045)
문제해결력				-.016(.049)
개인적, 사회적 책임의식				.029(.043)
세계시민의식				.218(.049)***
국가정체의식				.059(.036)
N	484	471	470	466
R^2	.066	.153	.420	.465
Adjusted R^2	.059	.139	.405	.443

* 주: * $p < .05$, ** $p < .01$, *** $p < .001$

* 출처: 정은주, 김정숙(2018).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I.

05. 재외동포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현안 & 이슈

- 재외동포청소년 지원사업의 목표를 한민족정체성 유지 및 함양에 두는 것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지만, 혈통주의적, 당위적 한민족정체성 유지를 강조하기보다는 한국과 한국어,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인식 제고를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우호적, 긍정적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 →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인식 및 태도는 거주국의 모범적 시민으로서 또는 모국의 발전에 가교 역할을 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또한 이들이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는 데에는 부모의 한국에 대한 태도와 인식이 중요하므로, 재외동포청소년의 부모의 인식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 (※ 재외동포사회의 요구사항이기도 함)
- 재외동포청소년 교육목표와 내용: 세계시민의식 증진 및 관련 내용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노력 필요

05. 재외동포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현안 & 이슈

02 한글학교 관리 및 업무 담당 인력 지원

- 현재 한글학교는 재외동포청소년 성장 지원 및 재외동포청소년간 교류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한글학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원은 재외동포재단에서 하고 있음.
 - 한글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
 - 한글학교 교사 연수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현지 강사 파견 업무 등
- 그런데 한글학교들은 지역 상황 및 학생수에 따라 여건에 차이가 많고, 재외동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글학교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 및 노하우가 부족한 경우가 많음.
- 이 때문에, 한글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여 지급하는 데에서 나아가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지원에 대한 요구가 있음.

05. 재외동포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현안 & 이슈

- 한글학교 지원은 한국교육원과 재외동포재단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현재 대부분의 한국교육원은 원장 1명 (현지 행정 지원 인력 1명)이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교육원은 주로 현지 학교에 한국어 채택 지원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교육부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어 한글학교 지원 업무가 주된 업무로 볼 수는 없음.
- 재외동포재단의 경우, 한글학교 예산 지원만을 할 뿐 한글학교 운영이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은 주로 한글학교 교사 연수(온라인, 오프라인) 지원, study.korean.net 사이트 운영, 현지 강사 파견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재외동포청소년 교육에 있어서 한글학교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한글학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인력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인력 지원 및 파견을 어느 기관(한국교육원, 재외동포재단)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 효율적일지에 대한 논의 필요

05. 재외동포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현안 & 이슈

03 모국 방문 기회 확대 방안 모색

- 전세계 모든 재외동포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지원 욕구 1순위는 한국 방문 기회 확대로 조사되었음.
- 또한 앞서 통계분석 결과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재외동포청소년의 거주국 및 모국 캠프 및 프로그램 참여는 한민족정체성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임.
- 그러나 매년 재외동포청소년 중 500명(중고생 기준)만이 모국 방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임. (2018년 재외동포재단 중고생 연수 인원 기준)
- 재외동포청소년들은 가족여행, 친척 방문 등 개인적인 방문을 제외할 경우, 공식적인 모국 방문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05. 재외동포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현안 & 이슈

- 이스라엘 정부는 이스라엘 재외동포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청소년, 청년들에게 이스라엘을 의무적으로 방문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모국 방문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정 확보, 운영 주체 다변화, 프로그램 다양화 등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재외동포청소년의 모국 방문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재정 확보 문제
 - 재외동포재단의 재외동포청소년 교류사업 예산 확대
 - 재외동포청소년 모국 방문 확대를 위한 별도 기금 조성
- 재외동포청소년 모국 방문 프로그램 운영 주체 다변화
 - 재외동포재단 vs. 지자체 vs. 시도교육청
- 재외동포청소년 한국 체험 프로그램 다양화
 -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필요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연계 방안 고려

05. 재외동포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현안 & 이슈

기본 입력 값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연령 <input type="checkbox"/> 학년 <input type="checkbox"/> 거주국 <input type="checkbox"/> 국제결혼가정 어부부모님중 한 명만 한국인 <input type="checkbox"/> 한국어수준 (상, 중, 하) <input type="checkbox"/> 한국 방문 목적 <input type="checkbox"/> 체류 기간 <input type="checkbox"/> 희망 프로그램(1일, 3일, 1주일, 2주일, 한 달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프로그램 참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자, 부모님 동반 - 재외동포청소년을 재외동포청소년-한국청소년 공동 <input type="checkbox"/> 희망 프로그램 또는 관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중고등학교, 대학교) - 직업, 취업 - 문화 예술 - 모험 체험 - 과학 환경 <input type="checkbox"/> 봉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도량 - 봉사

참여 가능 목록 제공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매트릭스 개발(안)



Study korean 사이트(학생)에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연계

* 출처: 정은주, 김정숙(2018).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I.

05. 재외동포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현안 & 이슈

04 재외동포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 현재 재외동포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재외동포청소년 관련 통계 또한 전문한 상황임.
- 이 때문에, 재외동포청소년의 규모, 거주국 내에서 이들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재외동포현황 조사에서 연령별 재외동포 현황을 추가하여 조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05. 재외동포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현안 & 이슈

- 재외동포재단의 주된 사업 중 하나는 ‘조사연구사업’으로, 이 사업의 일환으로 재단의 사업 개선 및 신규사업영역 개발을 위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거나 재외동포와 관련된 주제로 연구 과제를 위탁하고 있음.
- 주로 재외동포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연구에 집중하기는 어렵겠지만, 정기적으로 재외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지원 방향을 수립하고, 지원 사업의 내용을 개선하거나 도출하는 데 근거로 삼을 필요가 있음.
- 현재 연령별 재외동포청소년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치가 부재하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연령별 재외동포 인구 규모를 고려하여 표본추출을 적용한 할당표집은 불가능함.
- 그러나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지원 욕구를 파악하고 그에 기초한 정책과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 대륙별 재외동포 현황을 토대로 3~4년을 주기로 정기적 실태조사 추진을 고려해 볼 수 있음.)

06 참고문헌

- 국무조정실(2017. 12.22.). “해외체류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 740만 재외동포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보도자료 <http://www.korea.kr/common/download.do?tblKey=GMN&fileId=185800148>에서 2019년 4월 20일 인출
- 김경준, 김태기(2015).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I.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경준, 정은주(2017).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II.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전용일, 고선윤, 이민영, 손동희(2017). 재외동포의 장기적 활용 및 통합제고 방안 연구. 법무부. (사)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
- 재외동포재단(2017). 2017 재외동포교육기관 현황.
- 정은주, 김정숙(2018).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I.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인진, 채정민(2007). 북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외교부(2017). 2017 재외동포현황.
- 외교부 공공외교포털(<http://www.publicdiplomacy.go.kr/introduce/public.jsp>) 에서 2019. 5. 20. 인출



06 참고문헌

- 재외동포재단 http://www.okf.or.kr/homepage/intro/organization_chart.do에서 2019.5.23. 인출
- 교육부 <https://www.moe.go.kr/user/detail.do?deptCD=1342021&m=0604>에서 2019.5.23. 인출
- 국립국제교육원 <http://www.niied.go.kr/user/action/organization.do?pageST=nd8419>에서 2019.5.23. 인출
- 중앙교육연수원 <https://www.neti.go.kr/>에서 2019.5.23. 인출
- 국립국어원 https://www.korean.go.kr/front/dept/deptMemberList.do?mn_id=233&dept_id=10에서 2019.5.23. 인출
- 통계청 보도자료(2015).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bSeq=&aSeq=347102&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EC%84%B8%EA%B3%84%EC%99%80+%ED%95%9C%EA%B5%AD%EC%9D%98에서 2018. 1. 25. 인출



감사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토 론

- 이 진 영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이 민 희 (평택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교수)
- 조 형 재 (재외동포재단 차세대사업부 부장)
- 김 용 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정책사업부 부장)





재외동포 청소년 현황 및 효과적 지원방안 토론편

이 진 영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 문제제기와 필요성에 공감

- 필자가 지적하듯, 이 분야의 선행연구에서 개념에 대한 정확한 합의가 없고, 재외동포 청소년의 인구 및 실태 조사가 사실상 미비한 가운데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어려움에 동의함.
- 현황 파악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어려움 속에서 연구 결과 발표라는 점도 한계임을 동의함.
- 다만, ppt가 방대한 양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구조에 대한 설명이 없어, 5장으로 나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편을 기초적으로 작성함. 토론이라기보단 내용에 대한 설명 요청 이어서 포럼에서 필자의 발표를 듣고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하겠음.

2. 발표문의 전체 구조와 논리적 설계는 무엇인가?

- 1장에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에서 필요한 정책 과제를 제안하는 것이 목표이고, 이를 위해 2장은 개념과 지원 근거, 3장은 교육기관 현황, 4장은 지원 정책 현황과 욕구로 구성함. 그리고 5장은 현안임.
- 그렇다면 필요한 정책 과제 제안은 무엇인가? 정책 목표를 제시하는 것인가? 세부목표를 제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개별 프로그램들을 제안하는 것인가? 4장에서 재외동포정책의 방향 및 목표와 연계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정책의 방향

및 비전이 부재한 상황이라 언급함. 그리고 현안 중심의 단기적 과제 해결 필요성도 언급함

- 정책과제 제안을 위한 2,3,4,5장의 연결 구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주장점이 명확해질 것으로 생각함.
- 현안 중심의 단기적 과제 해결 필요성이 중요한 것이라면 이를 중심으로 발표를 재구성하면 좋을 것 같음.

3. 필자가 생각하는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의 전체 목표는 무엇인가?

- 효과적인 지원방안이나 지원정책이 전체 목표인 것 같음
- 정책의 방향은 시대변화를 고려하여 재구성해야 할 필요를 얘기하고 있음
- 2장의 개념과 논의의 필요성 부분은 중요한 시각을 담고 있음. 모국의 시각뿐 아니라 거주국의 시각, 그리고 위협요인으로 이중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한민족 정체성보다 강하다는 논의를 하고 있음. 5장에서 이를 다시 언급하고 있음.
- 가령 민족적 유대감이나 한민족정체성 유지 함양이라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요소라면, 정책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변화해야하는가?
- 일반 한국문화와 한국에 대한 관심을 지적하고 공공외교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를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으로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까?
- 이 경우 일반 외국인들에 대한 정책과 구별되는 재외동포 청소년만의 특수한 요인은 무엇일까? 없는 것인가?

4. 필자가 생각하는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의 세부 목표는 무엇인가?

- 그렇다면 전체 목표에 기초한 세부 목표는 무엇인가? 지원 프로그램인가? 기존의 여러 기관의 사업인가?

- 지원 프로그램의 목표 및 방향 재설정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예로써 프로그램 중 한글학교를 언급하였다. 한글학교에 대한 인력 지원 및 파견에서 기관 간의 중복 혹은 조정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것이 세부 목표인가? 지원 기관의 효율성에 대한 논의 필요에서 중복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기관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인지 등의 설명이 있으면 좋겠음.
- 모국방문 확대에 대한 논의도 비슷한 설명 구조임. 주장점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에 대한 지원 필요성 언급은 청소년의 경우 매우 적절한 것으로 보임. 어떤 측면에서 부모를 지원하여야 하는지 설명이 요청됨.

5. 정책 대상으로서의 개념과 주요 정책 타겟에 대한 설명

- 재외동포 중에서 만 9~24세 청소년
- 이 중 어느 지역 혹은 어느 연령 그룹이 주요 타겟이 되어야 하는가?

6. 3장에서는 재외동포청소년 교육기관을 살펴보고 있음

- 기관으로서의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 점을 암시한 것인가?
-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 현재 각 기관에서 펼치고 있는 사업(04지원정책 현황)은 문제가 있는 것인가?

7. 체계적 종합적 지원정책을 위한 구상은 무엇인가?

- 비전과 현안 중심의 단기적 과제로 구분하였는데,

8.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매트릭스 개발(안)은 무엇인가?

- 상세한 설명 필요.

9. 실태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매우 중요함.



재외동포청소년 지원방안 토론편

이 민 희 (평택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교수)

1. 재외동포와 재외동포청소년

발제자의 “재외동포청소년 현황 및 효과적 지원방안”은 지난 2015년~2017년 3년 동안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된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의 후속 연구인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2018)”를 요약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2018년 연구는 지난 연구보고서의 틀과 연구방법 등은 별반 큰 차이가 없으나 유럽의 독일과 프랑스 재외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 내용과 결과에서 기존 연구와 다소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2017년 기준 대한민국의 재외동포 인구는 약 743만 명에 달하고 있다.¹⁾ 저출산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시기에 재외동포, 특히 재외동포청소년의 인력을 국가의 미래인적자원으로 보는 시각은 일면 타당하다 할 수 있다. 재외동포의 인적 네트워크를 잘 활용한다면 재외동포 각 개개인은 훌륭한 민간 외교가나 국가를 위한 로비스트가 될 수 있고, 대한민국 기업 상품의 1차 소비자 및 광고자이며, 문화사절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한국 통일을 위한 중요한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발제자의 언급에 토론자는 백번 동의하는 바이다. 또한 지금까지 재외동포들을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들이 문민정부 시기부터 있어왔으나, 재외동포 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정책은 아직 수립되지 않고 있다는 발제자의 지적도 틀리지

1) 대한민국과 비교하여 독일의 재외동포 인구는 2017년 기준 약 340만 명에 달하고 그 중 180만 명 이상이 유럽에 거주하고 있다. 독일의 가장 많은 재외동포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약 113만 명이 해당되고 있다. 유학을 위해 해외에 거주하는 독일의 재외동포청소년은 약 14만 명에 달하고 있다.

(<https://www.deutsche-im-ausland.org/nc/news/news-details/34-millionen-deutsche-leben-im-ausland.html> 2019.06.09 인출)

않다. 1997년 재외동포재단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20년 정도 시간이 흘렀다. 법이 제정되고 정책이 시행되어 현상이 변화되기에는 그리 긴 시간은 아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의 재외동포 정책은 이제 초기 단계라 할 수 있고,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은 이제 막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그 간 4년 동안 재외동포청소년에 대한 지원 방안을 연구해온 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 수행은 국가 정책적으로 그 의미와 기여도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2.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몇 가지 제안들

2018년의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발제자가 제안한 정책과제들을 보면서 토론자의 의견을 몇 가지 덧붙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5년에 수행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을 위한 연구의 정책제언에서 이미 언급되었지만 여러 부처에 산발되어 있는 재외동포나 재외동포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부재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의 심도 있는 고민과 검토가 요청된다. 현재 외교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흩어져 있는 재외동포 관련 정책 업무가 각 부처의 전문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업무가 수행되는 것도 일면 부정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정책들을 보면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보일만큼 전체적으로 체계성, 연계성, 협력성, 융합성 등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아무래도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이 중추적 역할을 맡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가 담당 공무원을 각기 재단에 파견하여 재단을 보조하는 구조로 재외동포지원 체계가 재편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재단법을 개정하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일명 '재외동포지원위원회(가칭)'를 구성하는 조항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 이 위원회에 각 부처별 전문담당자가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해외동포청소년을 연령대 별로 9~18세와 19~24세로 나누어 이들에 대한 각기 맞춤형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연구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어린 연령의 거주국 출생 해외동포 청소년들은 이중정체성을 가지기 쉽고, 한민족 정체성 유지 및 함양에 있어서 이주해외동포 청소년들에 비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한편, 후기 청소년에 해당하는 대학생 연령층의 해외동포청소년을 위해서는 국가가 이들을 인적 자원으로 유치하여 교육과 취업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나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는 발제자가 언급한 공공

외교적 정책 접근으로 대한민국의 민간 기업이나 대학과 연계한 정책들이 마련될 수 있음을 뜻한다.²⁾ 특히, 우리보다 앞선 북중미나 유럽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해외동포청소년을 대한민국의 미래 인적 자원으로 유치하는 일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으로 개발되어야 마땅하다.

셋째, 재외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 것과 같이 이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모국에의 방문이다. 이러한 기회의 확대는 예산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예산을 마련하는 방법 중에는 이스라엘의 경우가 같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 미국의 재외동포 중 성공한 기업인이나 정치인, 법조인 등 민간의 기부금을 통한 기금의 조성과 외국에 진출한 조세감면 대상의 한국기업들로부터의 기부금 모금 등을 통해 '재외동포청소년지원기금(가칭)'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기부를 한 미국의 재외동포 기업은 재외동포재단의 해외이사로 위촉하거나 한국의 동종 산업영역에서 투자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등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넷째, 재외동포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협력적 생태계 구축의 정책과제 영역에서는 무엇보다 재외동포재단법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6조(교포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과 관련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재외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현재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주로 외교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청소년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도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요구된다. 위의 세 부처는 주로 재외동포 청소년의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교육 차원에서 기능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도 이들을 위해 국내 청소년들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선별되어 이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능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활동 영역에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6조(교포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에 근거하여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한민족청소년 축구대회 개최나 최근 뜨거운 K-pop 재외동포청소년 경연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 독일은 이미 2000년에 재외동포청소년만은 아니지만 외국의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 전문가를 자국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독일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소위 "Green Card" 제도를 도입하는 법을 개정하여 글로벌 거대기업에 맞서는 자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성공적으로 꾀한바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한지 3년 반만에 약 15,000명이 이를 통해 독일 국적을 취득했으며 그 중 26.4%가 인도 출신 전문가들이었다. (Kolb, 2005)

3. 차가운 인적 자원이나, 따뜻한 한민족 동포애나

독일의 Nieberg 박사는 그의 글에서 “왜 독일 정부가 재외동포를 돌아보아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좋은 정부는 자국민이 어디에 있건 그들을 보호하는 정부이고, 반대로 재외동포는 본국의 안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며, 각기 외교대사로 국제관계 속에서 본국의 영향력을 확장시킬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본국 경제를 국제 무역과 투자에 연계시킬 수 있다고 답하고 있다.(Nieberg, 2013: 7~8)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토론자는 Nieberg 박사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다. 대한민국 재외동포청소년에 관한 국가의 정책이 국가를 위한 인적 자원의 확보냐 아니면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고 있는 한민족을 위한 동포주의냐? 이에 대한 답은 분명 양자택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아 둘 중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정책의 방향과 성과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 국가가 발전을 위하여 해외의 우수한 재외동포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의 하나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차가운 기능주의적 접근도 그것이 지속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재외동포청소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따뜻한 한민족의 동포애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는 재외청소년동포를 위한 지원 정책에 있어서 점차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준, 김태기(2015).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I. 세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정은주, 김정숙(2018).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I. 세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Kolb, H.(2005). Die deutsche "Green Card". focus Migration, Kurzdossier Nr.3 November.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bpb).
- Nieberg, T.(2013). Deutsche im Ausland. Expatriates in Hongkong und Thailand. focus Migration, Kurzdossier Nr.22 Juni.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bpb).
- <https://www.deutsche-im-ausland.org/nc/news/news-details/34-millionen-deutsche-leben-im-ausland.html> 2019.06.09. 인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 제안’ 주제발표에 대해

조 형 재 (재외동포재단 차세대사업부 부장)

1. 문제제기와 정책제안의 연계성

재외동포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 제안 차원에서 제시된 ‘재외동포청소년 현황 및 효과적 지원 방안’(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정숙 연구위원 발제)은 ‘지속발전이 가능한 동포사회 구현’이 재외동포사회의 큰 과제로 떠오르는 현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주제다. 이 주제발표는 문제 제기에 따른 정책 제안으로, 재외동포청소년지원사업의 목표 및 내용에 대한 구체화, 한글학교 관리 및 업무 담당 인력 지원, 재외동포청소년의 모국방문 확대를 위한 재정 확보, 재외동포청소년 관련 정기적 실태조사를 제안하고 있다.¹⁾ 이 같은 정책 제안은 중요한 시점에 한글학교 인력 지원 등 이슈를 다시 제기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시도로 평가하며, 동시에 새로운 사실의 발견(New Findings, 즉 새로운 정책 제안) 면에서는 눈에 띄는 내용이 적었다는 아쉬움이 있다.

주제발표는 재외동포 차세대와 재외동포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정책이 수립되지 못했으며, 부처별로 정책이 산발적으로 시행되는 한계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문제 제기에 대해 부처별로 어떻게 통합적으로 체계적 정책을 수립할 지에 대한 방안은 제시되지 못했다. 물론 이 문제가 장기적 과제로 인식될 수 있음을 들어, 현안 중심의 단기과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럴 거라면 문제제기 자체가 단기 과제에 맞췄어야 한다고 본다.

1) 운영주체 다변화, 프로그램 다변화, 맞춤형 프로젝트 지원 등 세부적 정책 제안이 있으나 이는 모국방문 확대라는 큰 틀의 정책제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나열하지 않음.

2. 정책제안의 신규성과 논리적 근거

주제발표는 현안 중심의 단기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①재외동포청소년 지원 사업의 목표 및 내용에 대한 구체화, ②한글학교 관리 및 업무 담당 인력 지원, ③모국방문 기회 확대 방안 모색, ④재외동포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①번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사업의 목표 및 내용을 시대적 변화, 한국의 위상변화, 한글학교의 기능 변화, 동포들의 이민동기 변화, 자녀교육의 관점 변화에 따라 재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②번의 한글학교 관리 및 담당 인력의 증원 필요성을 지적한 점은 매우 적절한 제안이라고 본다. 그러나 4개 항의 정책 제안은 전체적으로 제안을 뒷받침하는 논거 측면에서 취약성을 노출하고 있다. 또한 ③, ④번은 제안의 신규성 면에서도 일정 부분 흠결을 안고 있다.

우선 ①번 제안은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사업의 목표와 방향성을 앞서 말한 5가지 변화에 따라 재설정할 것을 주장하는데,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예시가 적시되지 않아 아쉽다. 예를 들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강화된 만큼, '국격'유지를 위해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든지, 혹은 한글학교가 1세 교사의 퇴진과 다국어를 구사하는 2세 교사의 부족으로 교육의 지속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2세 교사 양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식의 대안이 제시됐으면 좋았을 것이다.

②번 정책제안의 경우도 자생적인 한글학교 운영에 따른 전문성 보완을 위한 인력지원 요구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관리 인력지원이 명확하게 필요하다는 것인지, 필요하다면 국내 인력의 지원이 필요한지, 해외 현지 인력이 필요한지가 명확하지 않다.

③번의 재외동포청소년의 모국방문 기회 확대 방안은, 현재 재외동포재단이 시행하는 '재외동포청소년모국연수'를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 아래 2018년도 720명, 2019년도에는 1,030명²⁾의 재외동포청소년에게 모국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안의 신규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주제발표에서는 500명만이 모국방문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적시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소 다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외동포청소년들이 가족여행, 친척방문 등 개인적인 방문을 제외할 경우 공식적인 모국방문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칫 사실관계를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이들 재외동포청소년들은 모국연수 전체 비용의 85% 가량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모국을 방문하고 있다.

2) 2019년 재외동포중고생 참가자 680명, 대학생 450명에게 참가 기회 제공. 참가자들의 연령은 만 14세~23세로 모두 청소년에 해당함.

물론 1천여 명 정도의 모국방문자 수치가 많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재외동포재단은 앞으로도 연수 규모를 계속 확대하여 향후 4~5년내 연 5,000명이 모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예산확대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스라엘을 경우 매년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모국을 방문토록 정책을 펴고 있음. 그러나 재외동포가 국가존망과 직결되는 이스라엘과 한국을 똑같이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④번의 제안도 시의적절하지만 신규성은 떨어진다.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정기적 실태 조사는 재외동포재단은 과거 시행한 바 있다. 최근 예산상의 문제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국의 위상 강화, 국내 인적자원의 변화, 재외동포사회의 환경의 변화 등 여건이 변한 만큼 정기적 실태조사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3. 효율적 지원방안에 대한 제언

재외동포청소년들의 지원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모국은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국외 실태조사 및 국내 자체 연구조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재외동포 정책은 재외동포청소년에 대한 지원(재외동포재단의 차세대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과 유사)을 마땅히 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개략적 적정 지원 범위·규모에 대한 공유된 인식은 없는 상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공통 인식을 먼저 도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러 부처가 연관되어 있어 바로 시행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여기서는 임박한 현실적 문제들을 중심으로 지원 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 제언은 한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 대외무역과 이와 연관된 재외동포의 중요성, 직면한 인구절벽 등을 감안할 때, 재외동포 정책은 현재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먼저 재외동포청소년의 성장과 직결되어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한 수요 파악과 이를 근거로 한 모국의 적정 지원 범위를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한글학교 운영, 교사연수, 청소년모국연수, 청소년모국수학(장학사업) 등이 주요 대상 사업들이다.

예를 들어 한글학교의 경우 현재 소요되는 총 운영비의 34%에 달하는 정부 지원금을 어느 수준까지 지원해야 한글학교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를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 운영비는 그 일부가 교사봉사로 지출되는데 봉사를 전제로 하는 수준이어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유능한 교사를 현재의 교수 수만큼 유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상당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다.

부족한 한글학교 교사 지원 문제는 국내 교사 파견에 역점을 뒀야 하는지, 현지 교사 양성에 가중치를 뒀야 하는지, 어떤 능력을 갖춘 교사를 키워야 하는지, 교사 지원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러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

매년 1천여 명에게 기회가 제공되는 청소년모국연수는 몇 명 정도를 초청하는 게 동포 사회의 니즈(Needs)를 충족하는 수준인지, 매년 80여명에게 기회를 주는 모국수학(장학 사업)은 몇 명에게 혜택을 줘야 적절한 것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모국연수 사업의 경우 재외동포재단은 잠정적으로 5년 이내에 연 5천명까지 확대 계획임) 현지에서 필요한 교재는 어떤 콘텐츠로, 어떻게 제작해서 공급해야 하는지를 파악, 대응해야 한다. 이들 사업에 대한 적정 지원 범위규모는 실태조사를 통한 분석을 거쳐야 정확히 설정되겠지만, 모두 상당한 예산의 증액을 전제로 하고 있다.

둘째로 재외동포청소년의 한글, 한국역사 및 문화 교육을 위한 킬러 모바일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 유튜브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급할 것을 제안한다. 이 콘텐츠는 우수한 제작진이 동원하여 쉽고 재미있게 차별화하여 만든 뒤, 탁월한 강사를 통해 전달해야 한다. 이 콘텐츠를 들고 한글학교에 나오지 않는 많은 재외동포청소년과 10만여 명의 한글학교 학생들에게 모바일로 찾아가는 것이다. 이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성공한다면 재외동포청소년의 교육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한글학교의 근본적 문제인 학생 수 감소와 교사 부족의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재외동포청소년에 대한 교육이 글로벌한민족네트워크 구축의 핵심 과제라고 한다면, 그에 수반되는 예산쯤은 충분히 부담할 수 있을 것이다.



제15회 청소년정책포럼 토론문

김 용 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정책사업부 부장)

우리의 재외동포는 약 750만명이며, 국내체류 외국 국적동포도 100만명에 가깝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도 1999년 공포된 <재외동포의 출입국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법률은 수 차례 수정해 왔으나 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에 관한 것이고, 재외동포의 법정 지위 규정은 거의 외국인과 같은 수준이다. 따라서 한국 체류 재외동포들은 명색이 한민족이고 실제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받거나 외구인 취급을 받고 있다.

1019년 재외동포정책 법제화 20년을 맞는 대한민국은 사회적인 대통합의 기로에 있다. 우리민족의 먼 장래를 준비하는 의미로 특히 청소년동포들의 정책적인 지원 방안의 모색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현재 각국에서 성장중인 재외동포 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은 향후 세계속의 한민족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중요하게 기여한다고 생각된다.

발제의 문제의식을 제기한 부분에 있어 재외동포 청소년을 한민족 정체성을 지닌 재외동포 차세대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정체성과 민족성에 대한 고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청소년 시기에 적절한 정책적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나 재외동포 차세대와 재외동포 청소년을 위한 체계적 지원정책은 수립되지 못해 왔다는 점과 교육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아닌, 부처별로 산발적인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는 것은 공감한다. 사실상 재외동포 현황은 있자만 재외동포 청소년의 현황은 대륙별 한글학교 및 교원수에 그치고 있다 물론 나라마다의 재외동포 청소년을 파악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일 것이지만 제대로 된 지원을 위해서는 현황과 문제에 대한 파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과거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이주한 재외

동포와 달리 1990년대 이후투자 및 사업, 자녀교육 등을 목적으로 해외로 이주한 재외동포 및 그 자녀들의 한민족 정체성은 이전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재외동포 차세대는 거주국 주류사회로의 편입 및 동화 정도가 높을 수 있어, 한민족 정체성과 모국과의 유대는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은 매우 시사점이 있다. 90년대이후 해외 이주한 동포나 그 자녀들은 주류사회 동화정도가 매우 높아 한민족의 정체성과 모국의 유대는 약화될 가능성이 많으나 재외동포청소년을 대한민국의 발전의 촉진자, 한민족 문화의 계승자 및 후원자로 성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현지의 한국인으로서의 정책적인 과제와 제안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한국의 실질적 재외동포정책이 수립된 시점은 김영삼 정부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고 96년 국무총리 산하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설치와 97년 3월 재외동포재단법 제정하였고 97년 10월 재외동포재단 설립 등의 노력을 통해 많은 지원 사업들을 실행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하지만 재외동포지원법률 20년을 맞이하면서 과연 그 지원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해왔는가는 한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 단순 교류 형태의 방문정도는 아닌지... 외국 청소년의 문화탐방은 아닌지.. 고국방문 체험 정도는 아닌지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히려 요즘 TV매체 등에서 활약하는 외국인들의 한국 문화수용과 사회적응에 앞서 외국인이 보고 체험하는 문화의 선두주자로 활동하는 것 등을 볼 수 있다.

다시 발제자의 발제에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사업의 목표 및 내용에 대한 구체화와 한글학교 관리 및 업무 담당 인력 지원과 모국 방문 기회 확대 방안 모색과 재외동포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도 중요한 지원정책이라고 생각하고 더불어 앞으로는 재외동포청소년 지원사업의 목표를 한국과 한국어, 특히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인식제고를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우호적, 긍정적 인식을 가지도록하는 것이 중요하고 살아가야할 거주국의 모범적 시민으로서 또는 모국의 발전에 가교 역할을 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은 거주국과 모국과의 소중함을 가지게 될 것이다.

정리하자면 본 토론자는

1. 우리는 재외동포 청소년을 대한민국의 동력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고 있는가?
2. 지금 현재의 재외동포 청소년의 현황은 제대로 가지고 있는가?

3. 20년간의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은 시대에 흐름에 변화하고 있는가?
4. 재외동포 청소년에 대한 혁신적 포용정책은 수립되고 있는가?
5. 재외동포 청소년을 미래인재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가? 에 대한 연구와 지원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추구해 왔던 재외동포들을 차별하는 정책이 아니라, 그들을 포용하고 안는 정책과 제도를 혁신적으로 재정비할 시기이다. 세계의 오지에서 조국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살아온 재외동포들의 요구에 화답하는 길이다. 특히 차세대를 살아가야 할 이시대의 디아스포라 청소년들에게 모국이 기대하고 열망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세미나자료집 19-S18

15회 청소년정책포럼

**미래 동포사회 주역인재외동포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 제안**

인 쇄 2019년 6월 14일 발행

발 행 2019년 6월 14일 인쇄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송 병 국

등 록 1993. 10. 23 제21-500호

인쇄처 신진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함
